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허공이 땅에 떨어질 때

학승이 물었다.
“젓나무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있다.”
학승이 물었다.
“언제 성불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허공이 땅에 떨어질 때를 기다려라.”
학승이 물었다.
“허공은 언제 땅에 떨어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젓나무가 성불할 때를 기다려라.”

問 柏樹子還有佛性也無 師云有 云幾時成佛 師云 待虛空落地 云虛空幾時落地 師云 待柏樹子成佛

젓나무는 이미 성불했다. 성불한 젓나무를 또 성불시키려고 하니 그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은 이미 부처이다. 그런 사람이 또 부처가 되려고 하니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머리를 두고 머리를 찾는 것과 같다. 이것은 입에 선사가 한 말이다. 입제 선사는 참선 한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황벽 스님의 주장자를 3번 맞고 깨어났다. 이것은 늦게 깨달은 것이다. 육조 스님은 행자 8개월 만에, 스님이 되기 전에 흥인 스님의 <금강경> 해설을 듣고 깨어났다. 이 육조 스님이 중국에서 가장 빨리 깨달은 선사이다. 그러나 범

로 말하자면, 육조 스님도 늦다. 단 한번 법문을 듣고도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법이다.
젓나무가 성불한 부처임을 알려면 자기가 성불해야 한다. 내가 부처의 눈을 갖추고 있으면 젓나무는 이미 부처가 되어있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될 것이다. 젓나무만 아니다. 삼라만상은 부처님의 몸이고, 우주는 부처님의 마음이고, 형형 색색은 부처님의 옷이다. 눈을 뜨고 보면 틀림없다. 부처님이 그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고, 그대를 보호하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학승이 물었다.
“조사가 인도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앞니 빨에 떨어졌네.”

問 如何是西來意 師云 板齒生毛

70년대 해안시 승가대학에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한 선서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판치생모(板齒生毛)라는 말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판치생모라는 조주의 뜻을 아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도대체 판치(板齒)라는 한자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얼른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몇몇 선배들에게 물어보아도 역시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판치(板齒: 판대기 이빨) 자체가 풀어야 할 화두인가보다 생각했다. 그후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판치가 ‘널판에 난 용이’라는

뜻임을 알게 되었다. 목재상에 가서 널판을 잘 들여다보면 나뭇가지 뿌리였던 동그란 용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톱치면 널판이 뻥하니 구멍이 뚫린다. 이 용이가 바로 판치(板齒)이다. 판치를 ‘앞니 빨’로 번역하는 것은 유상(類象)으로 번역한 것이다. 사실 ‘앞니 빨’에 털이 난 것으로 보면 더욱 가관이 아닐 수 없으므로 이것도 일방 효과적인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판치는 화두가 아닌 한자 표현이다. 판치생모는 조사서래의에 대해서 조주 스님이 왜 ‘앞니 빨에 털이 났다’고 했는지 그것을 궁구해야 한다.

고전 선서는 중국어로 저술된 것이라 번역할 때 한글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 우선 번역 전문가가 직역을 중심으로 번역하고, 뜻을 살피는 사람이 다시 운문하고, 선의 전문가가 다시 감수하는 식으로 2·3종의 번역이 되어야 하는데, 70·80년대 한국 선불교 번역은 그리 완전을 기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판치라는 자구의(字句意) 하나를 아는 데만도 몇 년씩 걸렸다. 현재 2011년이 됐어도 선사만큼은 그리 큰 발전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달마가 중국에 가져온 선지(禪旨)를 묻는데 판치가 떨어졌나?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판치라는 글자를 들여다보지 말고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아 보아야 한다. 본 남자에게 판치생모의 뜻을 묻는다면 “천하의 남자들이여! 그대들은 역대 선사와 제불에 속지 말라”고 말하겠지.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②



아름다움과 추함에 미혹되지 않고 <대반열반경>

“아름다움과 추함에 미혹되지 않다”니, 누가? 과연 누가 그럴 수 있는가? 우리 모두 아름다움은 좋아하고, 추함은 싫어하지 않는가?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추함을 싫어하는 것이야말로 인지상정 아닌가. 누가 사람으로서 아름다움을 싫어하고, 추함을 좋아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그렇기로소니, 사실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우리 스스로, 속으로만,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 하여 좋아하고 추함이라 하여 싫어할 수 있다면 말이다.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서, 그 아름다움과 추함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면, 무엇이 굳이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취업을 앞둔 학생들은 외모에까지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아마도 겨울방학에 성형외과는 성시(盛市)일 것이다. 어느 성형외과 의사 한 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훌륭한 성형외과 의사는 훌륭한 정신과 의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의대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머리말에 나오는 말이라 들었다.

성형외과 의사가 정신과 의사이기도 해야 한다는 말은 성형외과를 찾는 이들에게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되리라. 설혹 그렇다손 치더라도 성형외과를 찾는 그 개인만의 문제가

“자신의 내부에 색(色)과 모습이 있다고 생각[想]하는 사람이 외부의 모든 색과 모습을 보고, 그곳에 한없는 아름다움이나 추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더라도, ‘이 아름다움과 추함에 미혹되지 않고 나는 진실을 보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최초의 수승한 경지이다.”(강귀혁 역, 민족사, 75-76쪽)

“아름다움과 추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단은 그 아름다움과 추함에 이끌려서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대승경전인 <무량수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나는 진실 보고 안다” 수승한 경지
극락은 남에게서 호불호 받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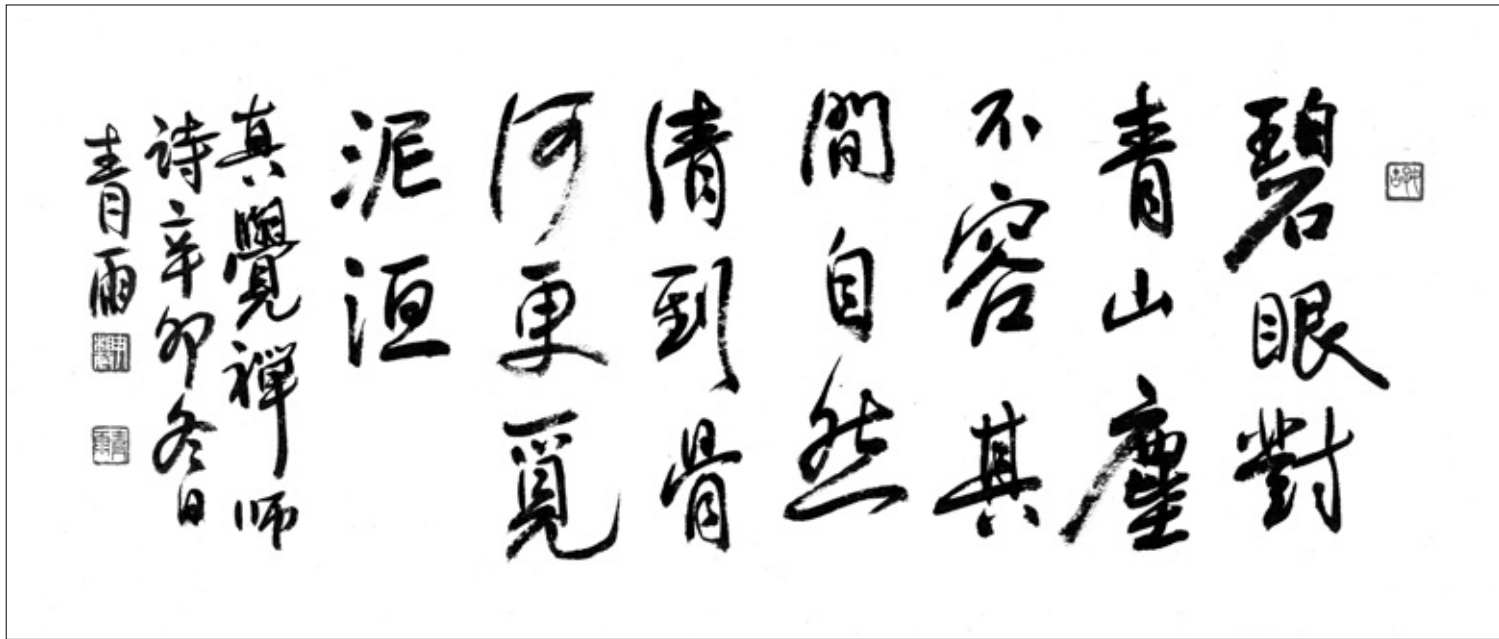
“가령 내가 부처가 되더라도, 그 나라 사람과 하늘의 생김새가 같지 않아서 좋아함과 싫어함이 있다면, 정각을 얻지 않겠다.” 이는 아마타불이 된 범장비구의 48원 중 네 번째 원이다. 무유호추의(無有好醜願)이라 부른다.

<무량수경>의 후후가 저 <대반열반경>의 미추와 다르지 않음은 두말 할 나위 없으리라. 48원 중에서, 특별히 이 원에 주목한 인물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다. 무유호추의 원 위에 스스로의 미학을 세웠다.

그런데 위에서 옮긴 내 번역을 좀더 선명하게 고치고 싶어진다. “그 나라 사람과 하늘의 생김새가 같지 않다고 해서(다른 사람과 하늘로부터) 좋아함과 싫어함을 받는다면, 정각을 얻지 않겠다.” 극락에도, 외모가 잘 생긴 사람과 못 생긴 사람이 있다. 다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남으로부터 좋아함을 받거나 싫어함을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 극락은 그런 세상이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운상민의 서화산책 해심 선사구



靑: 푸를 벽
眼: 눈 안
塵: 티끌 진
泥: 진흙 니
恒: 항상 항

靑眼: 선사
泥恒: 열반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어찌 열반을 구하리오

靑眼對靑山 塵不容其間 自然清到骨 何更覓泥恒
(벽안대청산 진불용기간 자연청도골 하경벽니항)
푸른 눈이 청산과 마주하니 그 사이에 티끌을 허용치 않고 자연의 청정함이 골수에 이르니 다시 어찌 열반을 구하리오. - 고려 진각해심 선사의 '선당시중(禪堂示衆)'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김문화(海月) 직점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術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DX-707 스탠드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06LC

특징: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역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250,000원 (택배비 포함)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500,000원

특징: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135,000원(일반형)
◇가격: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